

“코로나 백신접종 언제? 지역법안·개혁완수를”

광주·전남 설 민심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전한 설 민심의 최대 화두는 예상대로 코로나19였다.

이달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에 대한 관심과 함께 피폐해진 삶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설 연휴를 주민과의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대신, 화상이나 전파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형석의원(광주 북구)은 “제일 관심 화두는 코로나19로 백신을 언제 맞고 우선 순위는 어떻게 되느냐, 백신은 안전한가 등 우려와 기대가 교차했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은 어려움이 큰 소상공이나 자영업자 등에게 먼저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면발언에 대한 배경 등에 관심도 많았다”면서 “모처럼 지역 출신 대선 후보가 나왔는데 최근 내러간 지지율에 대해 아쉬움과 함께, 앞으로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계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코로나로 소상공인이 괴멸상태에 내몰리고 있어 정부의 과감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며 “호남의 현안인 한전공대 특별법,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주체, 여순사건 특별법 등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 달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 중심의 정권 재창출

“백신 안전 우려·기대 교차”

“소상공인 과감 지원 필요”

“사회적거리두기 완화해야”

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며 “이낙연 대표가 서울과 부산 보궐선거를 잘 치러 대권 지지를 받는데 기회로 삼길 바라는 기대감이 묻어났다”고 정치권에 대한 민심을 전했다.

최근 자가격리를 마치고 봉선시장과 무등시장을 돈 운영덕의원(광주 동남갑)은 “상인들이 이렇게 힘든 시기는 처음이다. IMF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반응이었다”면서 “그나마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돼 접종이 완료되면 예전처럼 사람들의 발걸음이 이

어지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도 있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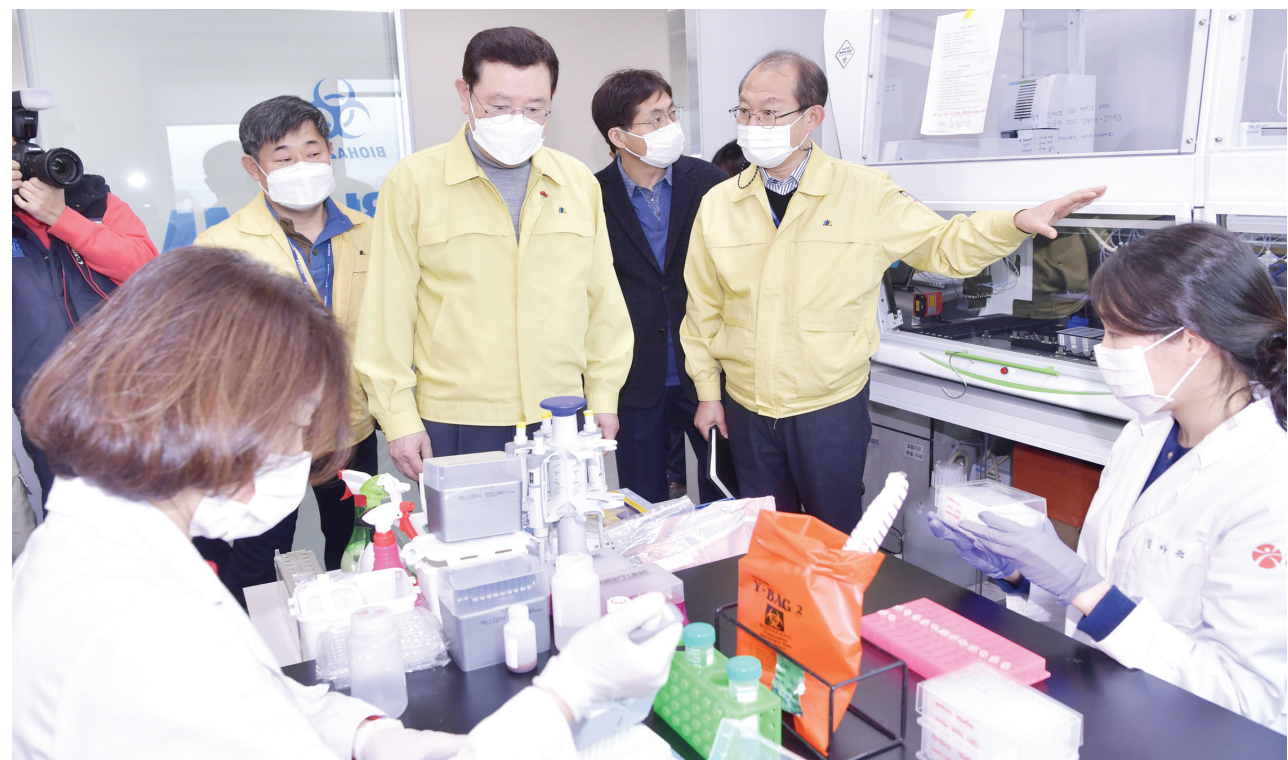
이병훈 의원(광주 동남)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등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완수에 대한 바람이 당원들 사이에 많았다”면서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체제를 만회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도 많았다”고 말했다.

서익원 의원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설 명절 고향방문 인원이 줄면서 그 영향이 차레음식과 농산물 판매 감소 등 지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줬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코로나 이후 시대의 복지, 보육, 출생, 농산물 가격 보장 등 대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익원 의원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설 명절 고향방문 인원이 줄면서 그 영향이 차레음식과 농산물 판매 감소 등 지역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줬다”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코로나 이후 시대의 복지, 보육, 출생, 농산물 가격 보장 등 대안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중당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은 “코로나 이후 농어촌 공간 재편과 조류독감 대응에 따른 피로도 상승, 외국인 노동자 주거 등 복지 문제 등에 주민들의 관심이 많았다”며 “농촌 토지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향후 식량위기가 타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선욱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보건환경연구원 직원 격려

이용섭 광주시장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 오후 서구 유촌동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검사과정 등을 점검하고 비상근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새 학기 외국인 유학생 입학’ 광주·전남 대학들 방역대책 수립나서

광주·전남 대학들이 새학기 외국인 유학생 입학을 앞두고 긴장 속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수립에 나섰다.

14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오는 3월 외국인 유학생 입학 예정 인원은 광주캠퍼스 274명, 여수캠퍼스 142명 등 총 416명이다.

광주캠퍼스 입학 예정 인원은 신입생 162명·재학생 112명이며, 여수캠퍼스는 신입생 66명·재학생 76명이다.

광주캠퍼스 등교를 위한 유학생은 5·18민주화교육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양성 판정은 곧바로 생활치료센터로, 음성 판정은 격리실로 이동해 14일간 격리에 들어간다. 여수로 향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여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격리장소로 이동한다.

전남대는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기존 방역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한편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남대는 광주캠퍼스 생활관 158개실, 여수캠퍼스 생활관 66개실을 격리실로 운영한다. 조선대학교도 대책 마련과 함께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조선대에는 새학기 130여 명의 유학생이 들어 올 예정이다. 조선대는 광주시 방역당국과 연계, 송정역 등지에서 1차 검사를 진행한다.

기숙사 내 격리 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격리에 따른 음식 꾸러미, 식대 지원 등의 대책을 수립했다.

신·편입생과 여학연수생·재학생 등 330여 명의 유학생이 찾을 것으로 보이는 호남대학교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호남대학교는 대형버스를 이용해 인천공항에서 광주까지 유학생들을 논스톱으로 수송하는 방안을 세웠다. 유학생들의 입학 예정일과 인원 등을 고려, 안전하고 신속하게 유학생들을 이송하겠다는 취지다.

유학생들이 광주에 도착하면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한 뒤 대학 내 별도 마련된 안정화 기숙사 시설로 입소시킨다는 계획이다. 유학생들은 2주간 격리 뒤 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으면 일반 기숙사로 이동한다.

광주 한 대학 관계자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대학 내 안전을 담보할 방침이다”며 “차질 없는 준비로 안전한 새학기를 맞이하겠다”고 강조했다.

동구, 광주 자치구 첫 ‘공동주택 온라인교육’ 진행

광주 동구는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광주 자치구 최초로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43개소 255명으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거,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매년 4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대상은 의무관리 대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임원 및 동별 대표자)이며 대상이 아니더라도 관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관심 있는 입주자는 누구나 수강이 가능하다.

서구, 지자체 최초 사회적가치지원센터 운영

광주 서구는 지난해 9월 공공기관 중 전국 최초로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거점공간인 ‘서로西路이을 사회적가치지원센터’를 개관하고 본격 운영에 나섰다.

2018년 4월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시비, 구비 각 5억원씩 총 15억원을 투입해 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센터는 지하1층~지상3층 규모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서구자원봉사센터, 불품공유센터가 입주해 있으며, 이 외에도 커뮤니티홀, 공유부엌, 회의실 공간 등 다양한 공유공간을 갖추고 있다.

남구, 그린뉴딜 분야 ‘에너지 주민활동가’ 양성

광주 남구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 추진에 발맞춰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에너지 절약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등 생활 속 환경실천 활동을 위한 ‘에너지 인식전환 주민활동가’를 집중 양성한다.

남구는 10일 “국가 차원의 그린뉴딜 추진과 에너지 및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대두됨에 따라 주민 주도의 에너지 인식전환과 친환경 인식 확산을 위해 주민활동가 30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남구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서 접수는 오는 22일까지이며, 남구청 6층 환경생태과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이메일(jinny94@korea.kr), 팩스(☎ 607-3605),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북구, 국토교통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

광주 북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공모에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19년 드론법 제정 이후 드론시스템의 상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고자 처음 실시됐으며 전국에서 15개 지자체(33개 구역)가 선정됐다.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되면 항공안전법과 전파법에 따른 드론 관련 인증·허가·승인·평가·신고 등의 사항에 대해 유예 또는 면제되거나 간소화 혜택이 주어진다.

광산구 앱과 함께 10만보 걷고 선물 받으세요

광주 광산구가 15~24일 ‘행복으로 걷기 광산’ 2월 워크온 챌린지를 시행한다.

행복으로 걷기 광산은 ‘걸어서 건강을 얻자, 행복을 만나자’를 주제로 광산구가 추진 중인 시민면역력 증진 프로젝트의 하나. 광산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활동이 줄어들어 시민의 신체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해 모바일 걷기 앱(app) 워크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챌린지는 2월 시민이 실천할 수 있는 내용, 스마트폰에 워크온 앱을 내려 받은 다음, 광산구 ‘행복으로 걷기광산’에 가입한 뒤 챌린지에 참여할 수 있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합정승인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0년 단 651 상속합정승인
사 망 자 : 김종훈 (671017-1637716)
최 후 주 소 : 전남 고흥군 과역면 과역로 1462

위 망 김종훈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합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1년 2월 15일

공 고 인 : 김영민(법정대리인(친권자모) 이미경).
주 소 : 전남 고흥군 과역면 송학샘길 35-9
합정승인수리일 : 2021년 1월 21일
공 고 기 간 : 2021. 2. 15 ~ 2021. 4. 15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음으로써,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급여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중소득층	저소득층
5분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분위	1,111원	1,711원	2,111원
3분위	2,711원	4,811원	26,697원
2분위	5,311원	10,611원	53,311원
1분위	10,611원	21,211원	106,611원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함께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는 한걸음!!

원청의 안전 보건책임이 강화되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 법안이 입법되었습니다.
정시간근로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한국노총전라남도본부

한국인본인중재원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를 위한 이후에 생활 속의 위기를 실천으로 기함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이여! 퇴근시간 엄수! 퇴근시간 엄수!